

# 대마도 종가문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대일교류

## - 『분류사고』의 주문품 조달 사례분석 -

정성일\*

### | 목 차 |

- I. 머리말
- II. 주문품 관련 대마도 종가문서의 개요
- III. 『分類事考』로 본 조선과 일본의 주문품 조달
  - 1. 주문품 개관
  - 2. 주문품의 유형별 사례분석
- IV. 맺음말

### | 국문초록 |

이 글은 대마도 종가문서를 활용하여 조선후기 대일교류를 양국 간 물품 이동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물품 이동은 무역 상인에 의한 경제적 교환, 외교 사절에 의한 외교적 교환으로 나뉜다. 그 밖에 상대국에 대한 주문(注文)을 통해서 물품이 교환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소개한 대마도 종가문서는 『관수일기』의 목록집에 해당하는 『분류사고』의 하나이다. 이 자료는 1686년부터 1836년까지 총 151년간 양국의 주문 내역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물품의 주문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선이 왕실 제례용으로 일본에 ‘구넨보’(久年母), 용안(龍眼), 밀감(蜜柑) 등

\* 광주여자대학교 서비스경영학과 교수 / [sichung@kwu.ac.kr](mailto:sichung@kwu.ac.kr)

과일을 주문한 사실을 이 글에서 새롭게 밝혀냈다. 이와 반대로 일본 측 주문을 살펴보면, 조선의 송골매(白松鵞, 松鵞, 松鵞鷹子) 등 매(鷹)를 가장 많이 주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대마도 종가문서는 조선 측 기록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를 『왜인구청등록』, 『변례집요』, 『전객사일기』 등 조선 측 기록과 종합적으로 분석해 나간다면,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의 역동성과 다양성이 한층 선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어: 조선, 일본, 대마도, 대마변, 종가문서, 쓰시마, 왜관

## I. 머리말

조선후기(일본의 에도시대) 대일교류, 즉 조선시대 한일교류의 역사를 연구할 때, 이른바 대마도 종가문서(對馬島宗家文書)<sup>1)</sup>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 자료는 한국과 일본에 분산 소장되어 있다.<sup>2)</sup>

이 글에서는 대마도 종가문서를 바탕으로 하여 조선후기 대일교류의 단면을 물품 이동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양국 간 물품 이동에는 몇 가지 범주가 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교환(貿易品)이 있는가 하면,<sup>3)</sup> 선린우호 관계의 유지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1) ‘대마도(일본에서는 對馬藩으로 부름)’가 생산 또는 보존한 문서 명칭에 들어 있는 ‘종가(宗家)’란 다른 아닌 대마도주 성씨(姓氏)인 ‘쇼[宗] 씨’ 가문을 가리킨다(대마도주가 ‘쇼[宗]’라는 성을 하사받기 전에는 ‘고레무네[惟宗]’를 칭했음).

2) ‘대마도 종가문서’의 일본 내 소장 기관인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学) 도서관은 ‘宗家記録’, 국립국회도서관(國立國會圖書館)은 ‘宗家文書’, 도쿄대학 사료편찬소(東京大学史料編纂所)는 ‘宗家史料’, 쓰시마박물관(前 對馬歴史民俗資料館)은 ‘宗家文庫史料’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자료의 명칭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田代和生, 『改訂『對馬宗家文書』について』, 『(マイクロフィルム板 對馬宗家文書 第Ⅲ期) 倭館館守日記・裁判記録』別冊【下】(田代和生 監修, 일본 ゆまに書房, 2006, 9~11쪽).

3)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개시(開市)와 조시(朝市)이다. 개시란 조

외교적 교환(別幅, 禮物)이 있다.<sup>4)</sup> 여기에 외교 실무자 개인 간의 호혜와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물 교환(音物)<sup>5)</sup> 등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문품(注文品)’은 위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주문품에 대해서는 한국<sup>6)</sup>과 일본<sup>7)</sup>에서 선행 연구가

선 정부(동래부사)와 일본 정부(대마도주)가 특별히 허락한 어용상인(御用商人), 특허상인(特許商人)이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서 교역(交易)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시는 왜관(倭館)의 수문(守門) 앞에서 아침마다 생선과 채소 등을 거래하는 것을 가리킨다.

- 4) 조선과 일본의 사신(使臣)이 지참하는 외교문서(外交文書), 즉 국서(國書)와 서계(書契)에 딸린 별폭(別幅)의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이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 5) 외교 사행(外交使行)에 참가한 자,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자가 상대방의 호의를 얻을 목적으로 개인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외교 의례로 정해진 것이 아닌데도)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마도 중가문서에서는 이것에 대하여 음물(音物)이라는 용어를 써서 기록하였다.
- 6) 한국에서는 구청(求淸)과 구무(求買)에 관한 연구가 있다. 구청과 구무의 용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동철, 『국역 왜인구청등록(Ⅰ) 해제』, 『國譯 倭人求淸謄錄(Ⅰ)』(부산사료총서 11),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4, 16~17쪽. 그리고 구청과 구무에 관한 이승민의 연구가 참고가 된다. 이승민, 『조선시대 종이의 생산과 외교적 활용』, 『한일관계사연구』 83, 2024; 『조선후기 求買를 통한 물품교역의 폐단과 조선의 대응』, 『西江人文論叢』 65, 2022; 『조선후기 墨[墨]의 제작과 일본과의 교역』, 『동국사학』 75, 2022; 『조선후기 조선의 對日 醫員 파견과 대마도의 조선 醫員 파견 요청』, 『한일관계사연구』 75, 2022; 『조선후기 求買를 통한 동물류 교역의 실태와 의미』, 『역사와 교육』 35, 2022; 『17세기 求買의 교역량 변화와 그 의미』, 『동국사학』 71, 2021; 『조선후기 求買를 통해서 본 조·일 간 물품교역의 현황과 특징』, 『동국사학』 67, 2019; 『조선후기 대마도와의 馬[馬] 교역과 그 의미』, 『사학연구』 107, 2012; 『조선후기 대마도 求買의 개념과 실태』, 『한일관계사연구』 36, 2010; 김정미, 『17~18세기 일본의 조선 약재 구청』, 『대구사학』 119, 2015; 『17~18세기 대일외교·교역과 매』, 『역사와 세계』 34, 2008; 이우리, 『17세기 일본 간행 조선본 『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 연구』, 『한국학』 44-1(통권 162), 2021; 『『왜인구청등록』에 나타난 조선 서적의 일본 전래』, 『서지학보』 37, 2011; 하여주, 『조선후기 대일관계 속의 皮物』, 『한일관계사연구』 49, 2014.
- 7) 일본에서는 헌상 의례(獻上儀禮)에 관한 연구가 있다. 김나영, 『일본 근세 번주(藩主)의 장례와 가신의 추도 규제—사가번(佐賀藩)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67, 2017; 岡崎寛徳, 『文久期の献上統制と馬・鷹—津輕家を事例として』, 『大倉山論集』 45, 大倉精神文化研究所, 2000; 高橋聖子, 『大名家の献上上品にみる幕藩関係: 家督御礼を中心に』, 『聖心女子大学大学院論集』 36, 聖心女子大学大学院, 2014; 東 昇, 『伊予大洲藩主の狩、御鷹野場と生業』, 『鷹・鷹場・環境研究』 4, 2020; \_\_\_\_, 『日本近世における産物記録と土産・名物・時献上』, 『洛北史学』 12, 2010; 越坂裕太, \_\_\_\_, 『

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자료는 아직 학계에 소개된 바 없다(『分類事考』 중 「御註文物之事 外向共」).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분석된 바가 없으며, 이와 관련된 다른 대마도 종가문서를 함께 활용한 실증 연구도 찾기 힘들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주문’은 일본 측 사료에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쓴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이것은 조선 측 사료에 나오는 구청(求請), 청구(請求), 구무(求買)와 비슷하다. 그런데 양측의 용어 사용에서는 약간의 차이점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구청(또는 구무)이 일본인이 간절히 요구해서 조선 측이 그에 대응한 것이라는 의미가 담긴 용어이다.<sup>8)</sup> 그래서인지 구청(구무) 관련 조선 측 사료에서는 일본이 조선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부하다. 그와 반대로 조선이 일본에 요구(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누락되거나, 설령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기술 내용이 소략하다.

여기에 비한다면 대마도 종가문서의 주문품 관련 기록은 조선과 일본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요구(또는 요청)한 사실 위주로 쌍방의 주문 내역이 작성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양측의 주문품에 관하여 기록한 대마도 종가문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第10章 『御鷹』の献上・下賜, (福田千鶴 編, 『鷹狩の日本史』, 勉誠出版, 2021), 179~191쪽; \_\_\_\_, 『近世前期における献上と大名家格秩序: 宗家の『十萬石以上格』創出に注目して』, 『日本歴史』 856, 日本歴史学会, 2019; \_\_\_\_, 『長門萩毛利家における隼献上の位置: 幕藩関係における『内献上』の構造化』, 『鷹・鷹場・環境研究』 4, 2020; \_\_\_\_, 『甲斐柳沢家の隼鷹献上: 御用鷹としてのハイタカの献上事例に着目して』, 『鷹・鷹場・環境研究』 5, 2021; 丸山大輝, 『対馬宗家による朝鮮鷹の輸送と献上―享保期の鷹狩再興と地域社会の視点から―』, 『長崎県対馬歴史研究センター所報』 2, 長崎県対馬歴史研究センター, 2022; \_\_\_\_, 『近世初期における鷹の調教と鶴取: 池内吉長の鷹術』を中心に, 『鷹・鷹場・環境研究』 3, 2019; , 森田喜久男, 『日本古代の王權と鷹狩』, 『鷹・鷹場・環境研究』, 2018.

8) 김동철, 앞의 논문, 2004, 16쪽.

## II. 주문품 관련 대마도 종가문서의 개요

대마도 종가문서(일본에서는 ‘쓰시마 소케몬쵸’라 부름)에 대해서는 다시로 가즈이(田代和生)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고전적자료실(古典籍資料室)이 목록집을 간행하였다.<sup>9)</sup> 그리고 필자도 『분류사고』와 『관수일기(館守日記)』 등을 활용하여 조선후기 왜관의 연료 조달 문제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sup>10)</sup>

이 글에서 다루는 자료는 현재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분류사고』인데, 그 가운데 열 번째에 해당하는 자료이다(『分類事考 10』). 이 자료에는 네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sup>11)</sup> 그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어주문물지사(御註文物之事) 외향공(外向共)』이다. 자료의 소재목에 들어 있는 외향(外向)이란 ‘바깥쪽’을 뜻하는 일본어 ‘소토무키’를 한자(漢字)로 적은 것이다. ‘바깥쪽도 함께(外向共)’라고 적은 것은 “안쪽과 바깥쪽을 모두 기록” 하였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바깥쪽’은 곧 조선(朝鮮)을 가리키며, 이것은 ‘안쪽’(일본)의 상대어이다. 당시 왜관의 일본인들이 작성한 기록에서는 이와 같은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다시 말해서 『어주문물지사 외향공』은 “조선과 일본이 서로 주문한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다.

이 자료와 관련성이 깊은 대마도 종가문서로서는 『관수일기』와 『분류기사대강(分類紀事大綱) 29』<sup>12)</sup>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관수일기』에

9) 田代和生・古典籍資料室, 『參考書誌研究 第76號』(國立國會圖書館所藏『宗家文書』目録), 일본 國立國會圖書館移用者サービス部, 2015.

10) 정성일, 『왜관의 연료 조달을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마찰(1609~1876)』, 『한일관계사연구』 66, 2019, 167~221쪽.

11) 『分類事考 拾』(일본 國立國會圖書館 分類事考 WA 1-6-31)의 표지에는 이 자료의 내용을 의미하는 4가지 소재목이 적혀 있다(① 御法事, ② 御印并以酤庵印鑑, ③ 御註文物之事 外向共, ④ 御主向筋之事).

대한 소개는 기존의 연구 성과가 있으므로,<sup>13)</sup> 여기에서는 그것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분류기사대강』의 편찬 배경과 사료적 특징 등에 대해서는 이훈(李薰)이 2005년 국사편찬위원회가 처음 간행한 책자에 자세하게 소개해 놓았다.<sup>14)</sup> 대마도는 1634년부터 1838년까지 7회에 걸쳐서 조선과 일본 사이의 통교(通交) 내용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분류기사대강』을 간행하였다. 이 원본 자료 가운데 제1기에 편찬된 자료는 모두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그리고 제2기부터 제7기까지 편찬된 자료는 대부분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다(일부 자료는 對馬博物館 쓰시마 연구센터가 소장).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분류기사대강』에 대해서는 이미 책자로 간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일본의 타 기관 소장 자료는 대상에서 제외).

아래에서는 조선과 일본이 서로 주문했던 내용이 어떤 자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분류사고』를 비롯한 대마도 종가문서의 기록을 중심으로 몇 가지 주문품의 사례를 함께 제시

12) 『分類紀事大綱 29』(823-30-26)의 원문 표지에는 ‘제26책’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분책(分冊) 등의 사유로 말미암아 현재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문서 관리번호는 29번으로 되어 있다. 이 자료는 5가지 소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① 朝鮮より所望物集書, ② 朝鮮之御詔物御調物集書, ③ 朝鮮人不時進上物集書, ④ 朝鮮人え不時被下物集書, ⑤ 譯官御物拜借一件). 이 글의 주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자료 ①과 ②이다. 이 가운데 김강일은 자료 ①을 활용하여 조선이 일본에 주문한 물품을 ‘求請物品’으로 규정하여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김강일, 『倭館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 對日 求請物品—「朝鮮より所望物集書」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34, 일본사학회, 2011).

13) 田代和生・古典籍資料室, 『參考書誌研究 第76號』(國立國會圖書館所藏『宗家文書』目録), 일본 國立國會圖書館移用者サービス部, 2015; 정성일, 『왜관 『관수일기』의 학술적 가치』, 『열상고전연구』 63, 2018. 이 가운데 『分類事考』에 대해서는 정성일(2018)의 14~16쪽에 서술이 되어 있다.

14) 이훈, 『해제』, 『分類紀事大綱 I』(對馬島宗家文書資料集 1), 국사편찬위원회, 2005, vii~x x iii 쪽.

하였다.

### Ⅲ. 『分類事考』로 본 조선과 일본의 주문품 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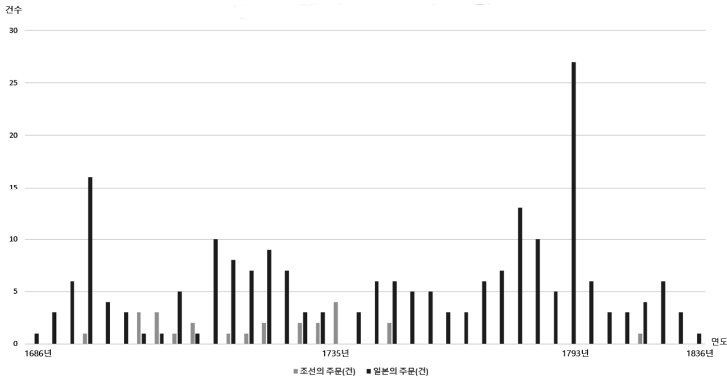
#### 1. 주문품 개관

『어주문물지사(御註文物之事) 외향공(外向共)』(『분류사고 10』)에 기록된 주문자는 조선 측과 일본 측으로 나뉜다.<sup>15)</sup> 이 자료에는 1686년부터 1836년까지 총 151년 동안의 주문 내역이 목록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좀 더 알기 쉽게 나타내고자 주문 기록의 건수를 국별(조선, 일본)과 연도별로 비교하였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먼저 주문이 이루어진 방향을 살펴보면, 조선이 일본 쪽에 주문한 건수보다는 일본이 조선 쪽으로 주문한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열은 색으로 표시한 그래프는 조선 측이 주문한 것을, 그리고 짙은 색 그래프는 일본 측의 주문 기록이 남아 있는 건수를 표시한 것이다. 연간 최대치는 일본 측이 1793년 27건, 조선 측이 1735년 4건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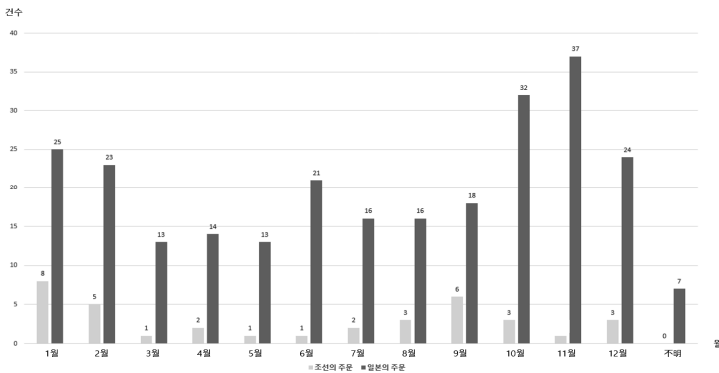
조선과 일본의 주문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그림 2>를 제시하였다. 주문 관련 기사를 월별로 비교한 자료를 살펴 보면, 양국의 주문에 계절적 요인이 작용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월간 30건이 넘었던 경우는 11월(38건), 10월(35건), 1월(33건)이었으

15) 이 자료에서는 주문에 해당하는 한자(漢字)를 ‘주문(注文)’과 ‘주문(註文)’을 섞어서 사용하였다. ‘주(注)’와 ‘주(註)’가 서로 다른 뜻의 한자이기는 하지만, ‘주문(注文)’이든 ‘주문(註文)’이든 일본어(日本語)의 음(音)이 ‘주문(ちゅうもん)’으로 같기에 이 자료에서는 이 둘이 같은 意味로 혼용된 듯하다. 그런데 조물(詔物)과 조물(調物)의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인다. 즉 조물(詔物)은 ‘주문을 요청할’ 경우에, 그리고 조물(調物)은 ‘주문한 것이 조달되었을’ 경우에 각각 사용하였다. 물론 이것 역시 이 자료에서는 혼용된 사례가 많다.

며, 12월(27건)과 2월(28건)도 30건에 육박했다. 이것은 주문 기록이 10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집중되었음을 말해준다. 이와 달리 월간 15건에 미달했던 경우는 3월(14건), 4월(16건), 5월(14건)이었으며, 이 시기의 주문 기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표 1> 참조).



〈그림 1〉 주문 기록의 연도별 및 국별 비교(1686~1836년)  
자료: 『御註文物之事 外向共』, 『分類事考 10』(일본 國立國會圖書館 소장)



〈그림 2〉 주문 기록의 월별 및 국별 비교(1686~1836년)  
자료: 『御註文物之事 外向共』, 『分類事考 10』(일본 國立國會圖書館 소장)

〈표 1〉 조·일 간 주문품 기사의 월별 추이(1686~1836년)

| 월  | 조선 누적 건수 | 일본 누적 건수 | 계(건) |
|----|----------|----------|------|
| 1  | 8        | 25       | 33   |
| 2  | 5        | 23       | 28   |
| 3  | 1        | 13       | 14   |
| 4  | 2        | 14       | 16   |
| 5  | 1        | 13       | 14   |
| 6  | 1        | 21       | 22   |
| 7  | 2        | 16       | 18   |
| 8  | 3        | 16       | 19   |
| 9  | 6        | 18       | 24   |
| 10 | 3        | 32       | 35   |
| 11 | 1        | 37       | 38   |
| 12 | 3        | 24       | 27   |
| 不明 | 0        | 7        | 7    |
| 계  | 36       | 259      | 295  |

자료: 『御註文物之事 外向共』, 『分類事考 10』(일본 國立國會圖書館 소장)

주 1: 숫자는 주문품 관련 기사의 건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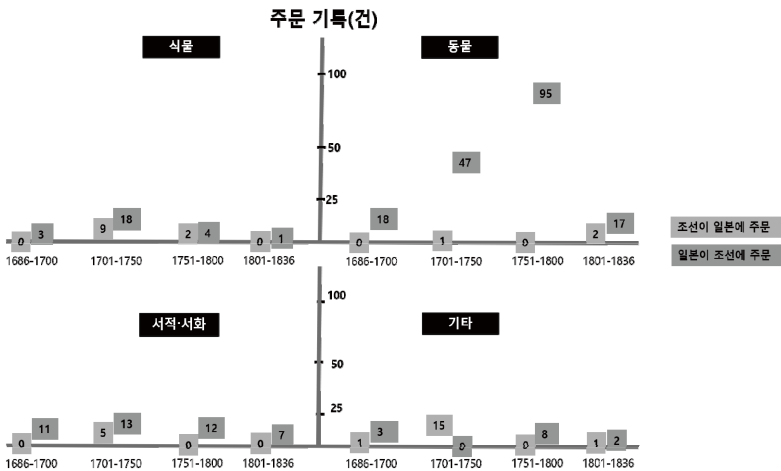
주 2: ‘不明’은 월일 기록이 없는 경우임.

『어주문물지사(御註文物之事) 외향공(外向共)』 기록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과 일본이 각각 언제 어떤 물품을 상대국에 주문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양국의 다양한 주문품 유형을 크게 넷으로 나누었다(① 동물, ② 식물, ③ 서적 또는 서화, ④ 기타 잡화). 그리고 양국이 주문했던 시기를 4기로 구분하였다(① 1686~1700년, ② 1701~1750년, ③ 1751~1800년, ④ 1801~1836년). 유형과 시기를 각각 넷으로 구분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서 조선과 일본의 주문품을 유형별·시기별로 정리하여 표와 그림으로 각각 제시하였다.

〈표 2〉 조선과 일본의 주문품 관련 기사의 비교(1686~1836년)  
(단위: 건)

| 구분                 | 기간        | 동물  | 식물 | 서작서화 | 기타 | 계   |
|--------------------|-----------|-----|----|------|----|-----|
| 조선이<br>일본 측에<br>주문 | 1686~1700 | 0   | 0  | 0    | 1  | 1   |
|                    | 1701~1750 | 1   | 9  | 5    | 15 | 30  |
|                    | 1751~1800 | 0   | 2  | 0    | 0  | 2   |
|                    | 1801~1836 | 2   | 0  | 0    | 1  | 3   |
|                    | 계         | 3   | 11 | 5    | 17 | 36  |
| 일본이<br>조선 측에<br>주문 | 1686~1700 | 18  | 3  | 11   | 3  | 35  |
|                    | 1701~1750 | 47  | 18 | 13   | 0  | 78  |
|                    | 1751~1800 | 95  | 4  | 12   | 8  | 119 |
|                    | 1801~1836 | 17  | 1  | 7    | 2  | 27  |
|                    | 계         | 177 | 26 | 43   | 13 | 259 |

자료: 『御註文物之事 外向共』, 『分類事考 10』(일본 國立國會圖書館 소장)  
주: 숫자는 위 자료에 기재된 기사의 건수를 나타낸 것임.



〈그림 3〉 조선과 일본의 주문품 관련 기사의 비교(1686~1836년)

자료: 『御註文物之事 外向共』, 『分類事考 10』(일본 國立國會圖書館 소장)

<표 2>와 <그림 3>에 따르면, 조선이 일본 측에 주문한 물품은 시기적으로는 1701~1750년에 집중되었다(총 36건 중 30건, 전체의 83.3%). 그리고 조선이 주문한 물품 중에서는 식물(11건)과 기타 잡화(17건)의 비중이 높았고, 동물(3건)이나 서적·서화(5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런데 일본이 조선 측에 주문한 물품은 1751~1800년에 집중되었다. 1686~1700년에 35건이었다가 그것이 1701~1750년에는 7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1751~1800년에 최고치에 도달하였지만(총 259건 중 119건, 전체의 45.9%), 1801~1838년에는 27건으로 이전 시기에 비하여 대폭 감소했다.

주문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본 측은 조선의 매(鷹)를 비롯한 동물을 가장 많이 주문하였다(총 259건 중 177건, 전체의 68.3%). 그 뒤를 이은 것은 43건을 차지한 조선의 서적(서화)이었다. 이에 반해서 일본 측이 조선의 식물(26건)이나 기타 잡화(13건)를 주문한 건수는 조선의 동물이나 서적(서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다.

요컨대 『분류사고』의 자료를 통해서 1686년부터 1836년까지 총 295건의 주문품 관련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을 먼저 국별(조선, 일본)로 나누고, 주문의 시기와 주문품의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한 뒤, 각 기사 연월일을 표기하여 <부표>로 제시하였다. 조선-일본 간 물품의 이동에 대하여, 다시 말해서 무역품에도 들어가지 않고, 외교 선물(예물)에도 포함되지 않은, ‘특별한 주문품’의 교환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 이 표가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 주문품의 유형별 사례분석<sup>16)</sup>

여기에서는 지면 제약으로 식물과 동물 중에서 각각 하나씩만, 그리고 조선과 일본 중에서 각각 하나씩만 소개하고자 한다. 즉 【사례 1 식물】은 조선이 왕실 제례용 과일을 일본에 주문한 것이며, 【사례 2 동물】은 일본이 조선에 송골매를 주문한 사례이다.

### 1) 식물—조선이 일본 측에 주문한 물품

일본이 조선 측에 인삼을 비롯한 약재 등 조선산 식물을 주문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밝혀져 있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 대신에 그것과 반대로 조선이 일본 측에 주문한 식물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대마도 중가문서 중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였다.

【사례 1 식물】 1701년 조선이 제례용 과일을 일본에 주문

① 『분류사고』 기사 1701년 9월 27일

“왕후 제례용으로 쓸 ‘구넨보’(久年母)와 밀감(蜜柑), 여지(荔枝 레이시)에 관한 일”<sup>17)</sup>

먼저 【사례 1 식물】은 『어주문물지사 외향공』의 1701년(숙종 27, 元祿 14) 기사이다. 이것은 맨 뒤에 제시한 <부표>의 조선 항목 연번 6의 9권 중에서 ① 久年母/蜜柑/荔枝(17010927 國用)에 해당한다. 위에서 보

16) 이 논문에서는 지면 제약으로 식물과 동물 중에서 각각 하나씩만, 그리고 조선과 일본 중에서 각각 하나씩만 소개하고자 한다. 즉 【사례 1】은 조선이 일본에 주문한 식물(제례용 과일), 【사례 2】는 일본이 조선에 주문한 동물(송골매)에 관한 것이다.

17) 王后祭禮用久年母蜜柑荔枝之事(『分類事考 10』, 『御注文之事 外向共』, 1701년(元祿 14) 9월 27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듯이 이 짝막한 기사를 통해서, 조선이 일본 측에 ‘구넨보(久年母)’라 불리는 식물을 비롯하여,<sup>18)</sup> 밀감(蜜柑)<sup>19)</sup>과 여지(荔枝)<sup>20)</sup>를 주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 가지 모두 과수(果樹)의 열매(과일)를 가리킨다. 이것을 ‘왕후의 제례용’으로 쓰고자 조선 측이 일본에 주문한 것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관수일기』의 해당 기사를 아래에 제시하였다.

② 『관수일기』 기사 1701년 9월 27일 (館守 嶋雄八左衛門)

- 오늘 가별차(假別差) 정판사(鄭判事)가 왜관으로 들어와서 (관수에게) 말하였음.
- 왕후 서거(后逝去)에<sup>21)</sup> 곧이어 제사(祭)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 
- 18) 한국학진흥사업성과포털에서는 이에 대하여 신유한(申維翰)의 『해유록(海游錄)』을 인용하여, “크기가 주먹만 한 것을 구넨모(九年母)라 하였는데, 구넨모라 불리는 어느 노파가 처음 심었기 때문에 지은 이름이라고 하였다. 또 구넨모는 크기가 크며, 껍질째 씹어도 신선함과 향기가 입안에 가득 찼다.”고 표현하였다는 설명을 달아 놓았다. 그런데 일본어 ‘구넨보’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굴과의 상록(常綠) 소고목(小高木)이다. 인도차이나가 원산이다. 오래전 중국을 거쳐 일본열도에 전해져서 재배되었다. 줄기는 높이 3~5m까지 자란다. 굴과 비슷한 모양인데 그보다 약간 크다. 길이가 10cm 정도 되는 타원형 잎이 어긋나게 자란다. 초여름에는 가지 끝에 향기를 풍기는 흰색 오판화(五弁花)가 핀다. 열매는 지름 6cm 정도의 구형(球形)이며, 가을에 익으면 주황색으로 변한다. 껍질은 두껍고 씨앗이 많지만 단맛이 있어 생으로 먹는다. 한자명으로는 굴(橘)이다. 이것을 향주(香橙)로 적는 것은 잘못이며, 향귤(香橘)이 옳다.(『精選版 日本国語大辞典』)
- 19) 밀감(蜜柑)은 식물 운향과의 상록 활엽 관목이다. 높이는 3미터 정도이며 잎은 달걀 모양이고 톱니가 없다. 첫여름에 흰 꽃이 총상(總狀) 화서로 잎겨드랑이에서 피고 열매는 장과(漿果)로 첫여름에 누런빛을 띤 붉은색으로 익는다. 과실은 ‘밀감’이라 하여 식용하고 껍질은 ‘굴피’라 하여 향료, 진피(陳皮) 대신으로 쓴다. 인가 부근에 심으며 한국의 제주도, 일본, 인도에 분포한다. 학명은 *Citrus nobilis*이다.
- 20) 여지(荔枝, 荔枝)는 무환자나무과에 속한 상록 교목이다. 잎은 어긋나고 깃꼴 겹잎이며, 꽃은 잡성화로 연한 황록색의 양성화, 단성화가 피며, 열매는 둥글고 돌기가 있다. 주로 중국 남부 원산으로 과수로 재배한다. 키는 10~15미터이다. 학명은 *Litchi chinensis*이다.
- 21) “축시(丑時)에 왕비 민씨(閔氏)가 창경궁(昌慶宮)의 경춘전(景春殿)에서 승하(昇遐)하였다.”고 『숙종실록』(1701년 8월 14일)에 적혀 있는 중전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승하 소식이 왜관에 공식적으로 전해진 것은 6일 뒤인 8월 20일이었다. 이날 훈도(訓

‘구넨보’(久年母), 밀감(蜜柑), 여지(荔枝), 용안(龍眼)을 제례(祭禮) 용도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비선(飛船)을 대마도(對州)로 보내서라도 조속히 구하여(取寄) 주기 바람.

- (당시 관수였던 시마오 하치자에몬이) 일대관(一代官) 요시무라 주고로(吉村忠五郎)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정판사에게) 답변을 했더니, 곧장 정판사가 일대관 쪽으로 가서 위의 내용으로 전달했다고 함.
- 그 뒤 (일대관이 정판사에게)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를 통사(通詞) 모로오카 스케자에몬(諸岡助左衛門)을 시켜서 (요시무라) 주고로가 (관수에게) 보고를 해주어서 (관수가) 자세하게 알게 되었음.
- 그런데 밀감(蜜柑)과 구넨보(久年母)는 (대마도에?) 재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용안(龍眼)에 대해서는 대마도(對州)에 재고가 없을 수도 있으니, 그것도 신속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정판사에게) 답변하도록 (관수가) 지시를 하였음.
-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마도에) 비선(飛船)을 보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마침 근일(近日)에 일특송사(一特送使) 첨관들이 (대마도로) 귀국하게 되어 있으니, 그 배편에 대관방(代官方)에서 위의 내용을 (대마도 본국에) 전달하도록 하라고, 이것 역시 (요시무라) 주고로에게 (관수가) 지시를 하였음.<sup>22)</sup>

導)와 별차(別差)가 통사(通事)를 왜관 안으로 들여보내, ‘중전 신사년 8월 14일 승하(中殿辛巳八月十四日 昇遐)라 쓴 문서와 함께 이 사실을 관수에게 알렸다(『館守日記』 1701년(元祿 14) 8월 20일(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 22) ○ 今日假別差鄭判事致入館申聞候は、后逝去追付祭■候、其節久年母蜜柑荔枝(?)龍眼祭禮■不申候而難叶儀二御座候間、飛船を以對州へ被仰越早々御取寄被下候様ニと申聞■一代官吉村忠五郎へ申談候様ニと返答仕候處、則鄭判事一代官へ參右之趣申達候由、依之返答如何可仕之旨通詞諸岡助左衛門を以忠五郎方より申聞候付、委細承届候、併蜜柑久年母は、■有合可申■龍眼之儀■對州へ有合可申も難計候。夫共二急便ニ可申越由返答被仕候様ニと申遣。(■은 원본 상대 불량임)
- 右同斷ニ付、飛船差渡候ニは及申間敷候間、近日一特送使僉官中歸國ニ付、此便ニ御代官方より、右之趣被申越候様ニとは又忠五郎方へ申遣。(『館守日記』 1701년(元祿 14) 9월 27일(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분류기사』와 작성일이 동일한 『관수일기』 1701년 9월 27일 기사에는 조선 측이 왕후 제례용으로 일본에 과일을 주문한 정황이 좀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분류기사』에는 ‘구넨보’ 등 3종, 『관수일기』에는 용안을 추가하여 4종).

조선 역관을 통해서 왕실 제례용 과일을 비선을 보내서라도 급히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관수(嶋雄八左衛門)는 다음과 같이 조선 역관에게 답변했다. 즉 비선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조만간 대마도로 귀국하게 되어 있는 일특송사(一特送使) 선박을 이용하여 대마도 본국에 알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이 요청한 물품 중 용안(龍眼)에 대해서는 대마도에 재고가 남아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점도 함께 조선 측에 전달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1701년 9월 말 시점의 『관수일기』를 통해서 확인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수일기』(1701.11.28.) 기사에서 위의 일특송사 선박이 대마도로 돌아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일특송사 일행이 타고 갈 2척의 배가 귀국 준비를 마친 뒤, 동년 10월 5일 부산을 출발했다.<sup>23)</sup> 그런데 일특송사 일행을 태운 그 배가 대마도 북쪽 끝 와니우라(鰐浦) 근처까지는 건너갔으나, 그 뒤 역풍(逆風)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선박 출입을 관리하던) 관소(關所)에 닿지 못한 채 두 척 모두 바람에 밀려 떠내려가고 말았다. 제1호선(大福丸)은 시모노세키(下関; 현 山口県下関市—인용자 주)까지, 제2호선(三吉丸)은 지노시마(地嶋; 현 福岡県宗像市—인용자 주)까지 표류했다. 그 배가 대마도(府中)에 귀착(歸着)을 한 때는 제1호선은 11월 3일, 제2호선은 10월 26일이었다고 한다.<sup>24)</sup>

23) 『館守日記』 1701년(元祿 14) 10월 3일, 동 4일, 동 5일(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24) 右者先月五日一特送使歸國之刻、貳号船三吉丸便ニ … (중략) … 鰐浦迄差越候處ニ一特送使僉官中乗船逆風ニ逢御關所へも難乗取、壹号船は下関貳号船は地嶋へ漂着仕、貳号船は先月廿六日壹号船ハ去ル三日御國へ歸着之由、… (후략) … 。  
(『館守日記』 1701년(元祿 14) 11월 28일(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따라서 1701년 9월 27일 기사에 나오는 ‘왕후 제례용 과일의 주문’ 사실이 10월 말(또는 11월 초)에 가서야 대마도 본청에 보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시 사정에 대해서는 위의 『관수일기』 기사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다음에 소개하는 『분류기사대강』 자료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에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

③ 『분류기사대강 29』 1701년 11월 5일 관수(嶋雄八左衛門)에게 보낸 서장(書狀)

1. 훈도와 별차가 왜관으로 들어와서, “지난번에(1701년 8월 14일—인용자주) 서거(逝去)하신 왕후(后) 제례(祭禮) 때 쓸 여지(荔枝), 용안(龍眼), 밀감(蜜柑), ‘구넨보’(久年母)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기에 (이를) 조달하고자 하니, 부디 비선(飛船)이라도 (대마도에) 급히 보내서, 위의 4종을 구해주도록 하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관수가) “이번에 (귀국하는) 일특송사(一特送使) 편으로 대관망(代官方)이 감정소(勘定所)에 알렸다”는 사실을 자세히 말해주어서 알게 되었음. 곧장 감정소에서 신속하게 조달하도록 할 것이니, (위의 4종이) 조달되는 대로 빠르게 (왜관으로) 보낼 것임.

위는 겐로쿠(元祿) 14년(1701년—인용자주) 11월 5일  
시마오 하치자에몬(嶋雄八左衛門) 쪽으로 보냄.<sup>25)</sup>

위에 인용한 서장(書狀)은 대마도에서 왜관의 관수(嶋雄八左衛門)에

25) 一 訓導別差入館仕り、先比逝去被致后祭禮之節荔枝龍眼蜜柑久年母備不申候而難叶義二候間相調申度候、何とそ飛船を以成りとも急便二被仰越、右之四色御取寄被下候様ニ申候ニ付、今度一特送使便ニ御代官方より御勘定所へ申越候由、委細被申越承届、則御勘定所へ早々相調候様ニ申度候間、相調急便ニ差越可申候。

右 元祿十四年 十一月五日 嶋雄八左衛門方へ申遣ス

(『朝鮮より所望物集書』, 『分類紀事大綱 29』,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게 보낸 문서이다. 문서 작성일이 11월 5일이므로 이것은 일특송사 선박이 모두 대마도로 돌아간(제1호선 11월 3일, 제2호선 10월 26일) 뒤의 일이다. 다만 11월 5일 시점까지는 조선이 요청한 제수용(祭需用)과 일이 아직 왜관에 도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sup>26)</sup>

그렇다면 조선 정부가 일본에 ‘구넨보’(久年母)라든가 용안(龍眼) 등을 주문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으며,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되었던 것일까?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여기에서는 1년 전인 1700년의 사례를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먼저 『조선에서 소망한 물품 기록 모음』이라는 제목의 자료에 들어 있는 1700년의 기사 2건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sup>27)</sup> 이 가운데 동년 10월 11일 서장(書狀)은 당시 재판(裁判)이었던 히라타 쇼자에몬(平田所左衛門)이 보낸 것으로 보이며, 동년 11월 13일 서장은 그와 반대로 히라타 쇼자에몬에 전달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래부사가 재판에게 밀감(蜜柑)과 ‘구넨보’(久年母)를 주문하였고, 이때의 명목은 ‘조선 국왕의 약용(藥用)’으로 쓰기 위함이라고 하였다(10월 11일). 동래부사의 요청이 대마도에 전달 되었고, 그 뒤 해당 물품을 선적한 배가 바다를 건너와 왜관에 도착했다(10월 14일).<sup>28)</sup> 이튿날(10월 15일) 조선의 두 역관(훈도, 별차)이 왜관으로 들어가 주문품을 전달받아 이를 동래부사에게 보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뒤 “동래부사가 감사의 인사를 재판에게 보냈음”이 확인되는

26) 숙종의 중전 인현왕후의 승하를 가리켜 『관수일기』에서는 ‘서울의 왕후 서거’(都后逝去)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를 조문하기 위한 조례사(弔禮使)가 일본(대마도)에서 바다를 건너와 왜관에 도착한 것이 1702년 2월 13일이었다(『館守日記』 1702년(元祿 15) 2월 13일(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따라서 전년도 9월 27일 조선 역관이 왜관으로 들어가 관수에게 요청했던 ‘구넨보’ 등 4종을 이때의 조례사 일행이 지참하고 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27) 『朝鮮より所望物集書』 『分類紀事大綱 29』,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28) 右飛船便二先頃東萊より裁判平田所左衛門方迄被申聞候久年母蜜柑被差渡(『館守日記』 1700년(元祿 13) 10월 14일(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데, 이것을 놓고 볼 때 대마도에서 비선을 통해 급히 조달한 밀감과 ‘구넨보’가 동래부사에게 전달되었음이 확실하다.

다만 이때 일본 측이 조선 역관에게 언급했던 내용과 그 표현 방법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임 대마도주(대마번주)가 동래부사에게 약용으로 쓸 소고기를 요청했을 때, ‘조선 정부의 도살 금지 정책’을 이유를 들어서 (대마도의 요구를) 거절했던” 전년도(1699년) 사례를 일본 측이 일부러 지적하면서, 동래부사가 조선 국왕의 약용으로 쓸 물품을 요청했을 때 일본 측이 신속하게 그것을 조달해준 1700년 사례와 그 전년도 조선 측이 대마도의 요청을 거절했던 사례를 의도적으로 대비시킨 것은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다.<sup>29)</sup>

## 2) 동물—일본이 조선 측에 주문한 물품

『어주문물지사(御註文物之事) 외향공(外向共)』에 따르면 일본이 조선 측에 조달을 요청한 동물 중에서는 매[鷹]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표>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조선의 말[馬]에 대한 주문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18세기 이후 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예를 들어 1751~1800년에는 동물 관련 기사가 95건에 이를 정도였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이 매에 관한 기사였다. 아래에서는 대마도 종가문서 중에서

29) 이보다 30년 뒤인 1730년에도 조선 정부가 ‘구넨보(久年母)’와 용안육(龍眼肉)을 주문하였다(<부표> 중 조선 항목 연번 6의 ④ 久年母.龍眼肉(17300929 國用) 참조). 이때는 대비(大妃) 제례용(祭禮用)으로 구넨보(久年母) 800개, 용안(龍眼) 6근을 조달해 줄 것을 동래부사의 지시를 받은 두 역관(훈도, 별차)이 왜관 측에(古館守) 주문하였다. 이에 대마도에서는 비선(飛船)을 띄워서 조선 측의 주문(요청)에 따랐다. 9월 20일 두 역관에게 ‘구넨보(久年母) 800개, 용안(龍眼) 6근’을 전달하였으며, 그 뒤 동래부사가 감사의 인사를 왜관 측에 전했다(『館守日記』 1730년(享保 15) 9월 5일, 동 20일, 동 26일, 동 29일(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分類紀事大綱』 I, 『分類紀事大綱 四』, 大妃薨去之事, 1730년(享保 15) 9월 4일, 동 5일, 동 14일, 동 23일(국사편찬위원회, 2005); 『分類紀事大綱 四』(大妃薨去之事)의 국사편찬위원회 원본 자료의 등록번호는 DK 0004523).

도 송골매(白松鵞, 松鵞, 松鵞鷹子 등)와 관련된 자료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 2 동물】 1725년 일본이 백송골이라는 매를 조선에 주문

① 『분류사고』 기사 1725년 5월 19일, 10월 5일

“백송골(白松鵞)에 관한 일, (백송골을) 잘못 보내온 것을 덧붙임.”<sup>30)</sup>

위는 매의 일종인 백송골(白松鵞)에 대하여 적은 『분류사고』 1725년 기사이다. 그리고 일본이 주문한 것과 다른 종류(품질)의 매가 왜관에 도착할 때는 일본 측이 그것을 점검한 뒤 퇴짜를 놓아서 돌려보내는 점 퇴(點退)가 이루어진 적도 있었는데, ‘(점퇴에 대해서도) 여기에 덧붙였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짤막한 기사만으로는 당시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해당 연월일의 『관수일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래에 관련 기사 2건을 제시하였다.

② 『관수일기』 기사 1725년(享保 10) 5월 19일

“지난번에 문의했던 백송골(白松鵞)이라는 매(鷹)를 드디어 조달한 것 같은데, 다만 (왜관으로 그것을) 가져오게 하여 (매의 품질을) 점검한 다음에, 혹시라도 ‘백송골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면, 여비(路銀)로 300문(匁) 정도를 내려주고 매(鷹)는 되돌려 보내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기에, 스즈키 쇼자에몬(鈴木庄左衛門)과 히로마쓰 시게스케(廣松茂助)를 불러내서 위의 취지를 전달하였다. 그런데 시게스케(茂助) 쪽에서도 일찍부터 친하게 지내던 (조선인) 상인이 있었

30) 白松鵞之事 附間違之事(『分類事考 10』, 『御註文物之事 外向共』, 1725년(享保 10) 5월 19일, 10월 5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기에 그쪽에도 얘기해서 (백송골 매를) 구해서 가져오라고 부탁을 해 놓았다.<sup>31)</sup>

위의 『관수일기』 기사를 살펴보면, 일본 측이 조선에서 백송골(白松鶻)이라는 매(鷹)를 구해가기 위해서 두 가지 경로를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왜관을 출입했던 조선 역관의 인맥을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왜관을 드나들었던 조선 상인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조선인 조력자를 동원해야 했다. 그 어느 쪽이든 매가 있는 먼 곳까지 왕래할 때 들어가는 여비(旅費)를 일본 측이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1725년 5월 19일 시점에서는 그 여비를 ‘300문(文)’ 정도로 추산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기사만 가지고는 이때의 화폐가 은화(銀貨)인지 아니면 동전(銅錢)인지 알 수가 없는 등 여전히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래 기사를 제시하였다.

### ③ 『관수일기』 기사 1725년(享保 10) 10월 5일

“지난번에 백송골(白松鶻)이라는 매(鷹)를 구하고자 조선인 1인을 별대관(別代官) 마치데다이(町手代)<sup>32)</sup> 히로마쓰 시게스케(廣松茂助) 쪽에서 고용하여 강원도로 보낼 때 들어가는 여비(路銀)를 시게스케(茂助)가 미리 대조해 보고(見合)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스키무라 우네메(杉村采女) 님께서 내리셨기에, 시게스케(茂介) 쪽에서 알아보았는데(承合), 왕복 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확인하여, 별지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관수가) 대관 쪽으로 문서를 보내 전

31) 先頃相伺候白松鶻之義弥相調之様ニ、尤取寄見分之上ニ而、若白松鶻ニ而無之候ハ、路銀參百匁程被成下、鷹ハ可被差返之旨、被仰下候ニ付鈴木庄左衛門并廣松茂助引寄、右之趣申渡ス。尤茂助方よりも早々親付之商人へ申談取寄候様ニ申渡ス。(『館守日記』 1725년(享保 10) 5월 19일(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32) 데다이(手代)는 일본 에도(江戸)시대 중기 이후부터 지역 사정에 밝은 하쿠쇼(百姓)나 죠닝(町人) 가운데서 선발된 중간층 역인(役人)을 말한다.

달하였다.

각(覺)

# 1. 은(銀) 150목(目)

위는 지난번에 백송골(白松鵲)이라는 매(鷹)를 구하고자 히로마쓰 시게스케(廣松茂助) 쪽에서 강원도에 사람을 보냈는데 그 여비를 알아보아서 지금하도록 하라고 스기무라 우네메(杉村采女) 쪽에서 지시가 있었기에, 아래와 같이 시게스케(茂助)에게 전달하기 바랍니다. 이상.

10월 5일 관수(보냄)

대관방(에게)<sup>33)</sup>

위의 자료는 약 5달 뒤인 1725년 10월 5일 『관수일기』 기사이다. 이것은 이날 관수(館守)가 대관방(代官方)에게 지시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통해서 당시 백송골(白松鵲)이라는 매(鷹)를 구하는 데 쓴 비용을(특히 여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일본 측이 백송골을 손에 넣으려면 왜관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까지 보낼 조선인을 물색했다는 점, 그리고 그때 소요되는 왕복 여비를 히로마쓰 시게스케(廣松茂助)라는 일본 측 담당자가 ‘(일본) 은(銀) 150목(目)’으로 추산했다는 점 등이 주목된다.

33) 先頃白松鵲爲求用朝鮮人壹人別御代官町手代廣松茂助方より相雇江原道へ差越候路銀茂介方より見合相渡候様ニ可申渡候旨、杉村采女殿より被仰下候故、茂介方承合候處、往來之路銀積りを以申聞候付、別紙左之通御代官方へ以書付申渡ス。

覺

一 銀百五拾目

右ハ先頃白松鵲爲求用廣松茂介方より江原道へ人遣いたし往來路銀見合相渡候様ニ杉村采女方より就御差圖右之通り茂助へ可被相渡候、以上。

十月五日 館守

御代官方

(『館守日記』 1725년(享保 10) 10월 5일(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이처럼 『어주문물지사 외향공』에 목록 형식으로 짧게 기록된 기사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있었던 주문의 내용과 그 시기를 알려주는 실마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관수일기』 등 다른 종류의 대마도 중가문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자 할 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주문품에 대하여 기록한 조선 측 사료(史料) 중에서는 『왜인구청등록(倭人求請謄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부산광역시가 지원하여 이 자료를 번역한 『국역 왜인구청등록』(Ⅰ~Ⅴ)이 이미 간행되었으며, 많은 연구자가 이것을 실증 분석의 자료로 활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소개한 1725년의 백송골(白松鵑) 조달에 관한 내용이 『왜인구청등록』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sup>34)</sup> 조선 측 자료인 『변례집요(邊例集要)』(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에서도 이와 동일 시기의 내용을 찾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조선 측 기록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내용이 대마도 중가문서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사례가 있다. 그러므로 일본 측 자료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대마도 중가문서는 조선 측 자료와 비교 분석을 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변례집요』와 『전객사일기(典客司日記)』 등 예조가 남긴 기록을 비롯하여, 동래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자료도 대조해 보아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

34) 『왜인구청등록(倭人求請謄錄)』에서 ‘송골(松鵑)’이라는 낱말이 기록된 사례는 1720~24년 사이에 몇 건이 확인될 뿐이다(① 1720년 5월 15일, ② 동년 8월 4일, ③ 1721년 윤 6월 10일, ④ 동년 12월 5일, ⑤ 1723년 9월 16일, ⑥ 동년 9월 9일, ⑦ 1724년 4월 1일). 그런데 『왜인구청등록』은 1724년 4월 1일 기사(“관백이 해동청과 송골, 새매 등이 분이 조선에서 나는 물건이 아니라고 분부하여 다시는 무역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서신이 왔다”는 동래부사의 장계를 수록)를 마지막으로 기록이 끝난다(『국역 왜인구청등록(Ⅴ)』,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8, 265쪽, 470쪽).

#### IV. 맺음말

이 글에서 주로 소개했던 자료는 1686년부터 1836년까지(총 151년) 조선과 일본의 주문 내역을 장기 시계열(時系列)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御註文物之事 外向共』 『分類事考 10』).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분류사고』에 기록된 내용이 『관수일기』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관수일기』에 기록되었더라도 그 내용이 『분류사고』에서는 누락된 사례가 있었음이 지금까지 분석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관수일기』는 물론이거니와, 『분류기사대강』 등 다른 대마도 종가문서의 기록과 함께 대조하면서 『분류사고』의 기록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나가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지면 제약으로 이 글에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부산광역시와 국역하여 간행한 『왜인가구청등록』의 해당 시기 내용과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일도 필요하다. 『변례집요』와 『전객사일기』 등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조선후기 대일교류사(對日交流史)의 실제적 진실이 더욱 뚜렷해지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韓日關係史)의 역동성과 다양성이 한층 선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 참고문헌 |

### 1. 사료

『국역 왜인구청등록(V)』,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8.

『館守日記』(일본 國立國會圖書館 소장)

『分類紀事大綱 4』(국사편찬위원회 소장)

『分類紀事大綱 29』,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分類事考 10』(일본 國立國會圖書館 소장)

### 2. 저서 및 논문

김경미, 「17~18세기 대일외교 · 교역과 매」, 『역사와 세계』 34, 2008.

\_\_\_\_\_, 「17~18세기 일본의 조선 약재 구청」, 『대구사학』 119, 2015.

김나영, 「일본 근세 번주(藩主)의 장례와 가신의 추도 규제-사가번(佐賀藩)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67, 2017.

김동철, 「국역 왜인구청등록(Ⅰ) 해제」, 『國譯 倭人求請謄錄(Ⅰ)』(부산사료총서 11),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4.

이승민, 「17세기 求質의 교역량 변화와 그 의미」, 『동국사학』 71, 2021.

\_\_\_\_\_, 「조선시대 종이의 생산과 외교적 활용」, 『한일관계사연구』 83, 2024.

\_\_\_\_\_, 「조선후기 求質를 통한 동물류 교역의 실태와 의미」, 『역사와교육』 35, 2022.

\_\_\_\_\_, 「조선후기 求質를 통한 물품교역의 폐단과 조선의 대응」, 『西江人文論叢』 65, 2022.

\_\_\_\_\_, 「조선후기 求質를 통해서 본 조·일 간 물품교역의 현황과 특징」, 『동국사학』 67, 2019.

\_\_\_\_\_, 「조선후기 대마도 求質의 개념과 실태」, 『한일관계사연구』 36, 2010.

\_\_\_\_\_, 「조선후기 대마도와의 말[馬] 교역과 그 의미」, 『사학연구』 107, 2012.

\_\_\_\_\_, 「조선후기 먹[墨]의 제작과 일본과의 교역」, 『동국사학』 75, 2022.

\_\_\_\_\_, 「조선후기 조선의 對日 醫員 파견과 대마도의 조선 醫員 파견 요청」, 『한일 관계사연구』 75, 2022.

이유리, 「『왜인구청등록』에 나타난 조선 서적의 일본 전래」, 『서지학보』 37, 2011.

\_\_\_\_\_, 「17세기 일본 간행 조선본 『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 연구」, 『한국학』 44-1(통권 162), 2021.

- 이훈, 『해제』, 『分類紀事大綱 I』(對馬島宗家文書資料集 1), 국사편찬위원회, 2005.
- 정성일, 『왜관『관수일기』의 학술적 가치』, 『열상고전연구』 63, 2018.
- \_\_\_\_\_, 『왜관의 연료 조달을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마찰(1609~1876)』, 『한일관계사연구』 66, 2019.
- 하여주, 『조선 후기 대일관계 속의 皮物』, 『한일관계사연구』 49, 2014.
- 岡崎寛徳, 『文久期の献上統制と馬・鷹—津輕家を事例として』, 『大倉山論集』 45, 大倉精神文化研究所, 2000.
- 高橋聖子, 『大名家の献上品にみる幕藩関係：家督御礼を中心に』, 『聖心女子大学大学院論集』 36, 聖心女子大学大学院, 2014.
- 東 昇, 『日本近世における産物記録と土産・名物・時献上』, 『洛北史学』 12, 2010.
- \_\_\_\_\_, 『伊予大洲藩主の狩・御鷹野場と生業』, 『鷹・鷹場・環境研究』 4, 2020.
- 森田喜久男, 『日本古代の王權と鷹狩』, 『鷹・鷹場・環境研究』, 2018.
- 越坂裕太, 『近世前期における献上と大名家格秩序-宗家の『十萬石以上格』創出に注目して』, 『日本歴史』 856, 日本歴史学会, 2019.
- \_\_\_\_\_, 『長門萩毛利家における隼献上の位置-幕藩関係における『内献上』の構造化』, 『鷹・鷹場・環境研究』 4, 2020.
- \_\_\_\_\_, 『第10章 『御鷹』の献上・下賜』, (福田千鶴 編, 『鷹狩の日本史』, 勉誠出版, 2021).
- \_\_\_\_\_, 『甲斐柳沢家の巢鷹献上-御用鷹としてのハイタカの献上事例に着目して』, 『鷹・鷹場・環境研究』 5, 2021.
- 田代和生, 『改訂『對馬宗家文書』について』, 『(マイクロフィルム版 對馬宗家文書 第Ⅲ期) 倭館館守日記・裁判記録』 別冊【下】(田代和生 監修, 日本 ゆまに書房), 2006.
- 田代和生・古典籍資料室, 『参考書誌研究 第76號』(國立國會圖書館所藏『宗家文書』目録), 일본 國立國會圖書館移用者サービス部, 2015.
- 丸山大輝, 『近世初期における鷹の調教と鶴取-池内吉長の鷹術』を中心に, 『鷹・鷹場・環境研究』 3, 2019.
- \_\_\_\_\_, 『對馬宗家による朝鮮鷹の輸送と献上-享保期の鷹狩再興と地域社会の視点から—』, 『長崎県對馬歴史研究センター所報』 2, 長崎県對馬歴史研究センター, 2022.

〈부표〉 조선과 일본의 주문품 관련 기사의 연도별·유형별 추이  
(1686~1836년)

| 연번 | 국별 | 시기        | 주문품<br>분류 | 기사<br>(건) | 품명(기사 연월일, 주문자 또는 용도)                                                                                                                                                                                                              |
|----|----|-----------|-----------|-----------|------------------------------------------------------------------------------------------------------------------------------------------------------------------------------------------------------------------------------------|
| 1  | 조선 | 1686~1700 | 동물        |           |                                                                                                                                                                                                                                    |
| 2  | 조선 | 1701~1750 | 동물        | 1         | ①鰐(17310918 國老 卞僉知)                                                                                                                                                                                                                |
| 3  | 조선 | 1751~1800 | 동물        |           |                                                                                                                                                                                                                                    |
| 4  | 조선 | 1801~1836 | 동물        | 2         | ①日本馬(18121103, 18130118 朝廷)                                                                                                                                                                                                        |
| 5  | 조선 | 1686~1700 | 식물        |           |                                                                                                                                                                                                                                    |
| 6  | 조선 | 1701~1750 | 식물        | 9         | ①久年母/蜜柑/荔枝(17010927 國用), ②西國米(17140125 國王; 17140220, 17140228 國王), ③耳薺(17240206 東萊), ④久年母/龍眼肉(17300929 國用), ⑤草木(17350221 國用), ⑥草花(17360214 兩譯), ⑦黃連(17490814 訓導)                                                                   |
| 7  | 조선 | 1751~1800 | 식물        | 2         | ①胡椒/丹木/朱(17510121, 17510122 不明)                                                                                                                                                                                                    |
| 8  | 조선 | 1801~1836 | 식물        |           |                                                                                                                                                                                                                                    |
| 9  | 조선 | 1686~1700 | 서적·<br>서화 |           |                                                                                                                                                                                                                                    |
| 10 | 조선 | 1701~1750 | 서적·<br>서화 | 5         | ①醫書(17210128 良醫), ②六壬論經(17220421 東萊), ③書物(17310608 東萊; 17351216 東萊用), ④四書易經(17350313 國用)                                                                                                                                           |
| 11 | 조선 | 1751~1800 | 서적·<br>서화 |           |                                                                                                                                                                                                                                    |
| 12 | 조선 | 1801~1836 | 서적·<br>서화 |           |                                                                                                                                                                                                                                    |
| 13 | 조선 | 1686~1700 | 기타        | 1         | ①時計(16910120 朝鮮公義)                                                                                                                                                                                                                 |
| 14 | 조선 | 1701~1750 | 기타        | 15        | ①時計(17071216, 17080130, 17081216 國用), ②空靑(17170814, 17170912 國王), ③空靑/磁石(17171004, 17180513 國王), ④水火鏡(17190729, 17200102 國王), ⑤赤水玄珠(17210908 不明), ⑥小間物(17251025 國用), ⑦延銅(17270814, 17270905 國用), ⑧銅(17300719 國用), ⑨角銅(17350415 國用) |
| 15 | 조선 | 1751~1800 | 기타        |           |                                                                                                                                                                                                                                    |
| 16 | 조선 | 1801~1836 | 기타        | 1         | ①불명(18081010 訓導)                                                                                                                                                                                                                   |

| 연번 | 국별 | 시기        | 주문품<br>분류 | 기사<br>(건) | 품명(기사 연월일, 주문자 또는 용도)                                                                                                                                                                                                                                                                                                                                                                                                                                                                                                                                                                                                                                                                      |
|----|----|-----------|-----------|-----------|--------------------------------------------------------------------------------------------------------------------------------------------------------------------------------------------------------------------------------------------------------------------------------------------------------------------------------------------------------------------------------------------------------------------------------------------------------------------------------------------------------------------------------------------------------------------------------------------------------------------------------------------------------------------------------------------|
| 1  | 일본 | 1686~1700 | 동물        | 18        | ①馬(16900503, 16900711, 16900907 御調; 16901008, 16901110 御; 16910202 御詔), ②駁馬(16910208, 16910419 御詔, 16980104 御調), ③駒(16911011, 1691(월일 불명), 16920415, 16920419, 16920506 御調), ④鶴(16911004, 16911105, 16911118, 16920221 불명)                                                                                                                                                                                                                                                                                                                                                                                                                                                                 |
| 2  | 일본 | 1701~1750 | 동물        | 47        | ①馬(17040222, 17040223 御調; 17161130 御獻上; 17230814, 17230827 公義; 17231227 御註文; 1724(월일 불명) 公義), ②駁(17230717, 1723(월일 불명 다수) 公義), ③獺馬(17251008 公義), ④猪(17141003 御用), ⑤馬/鷹(17231106 公義), ⑥鶯鳥(17110519, 17110620 불명; 17281118, 17290124, 1729(월일 불명) 御用), ⑦黃鳥(17481103, 17490422, 17500527, 17500721 毛利周防守), ⑧黃鷹(17170523 御獻上), ⑨鷹(17191208, 17191213 御獻上, 17231202 御註文, 17240721 御獻上, 1748(월일 불명) 松平陸奥守), ⑩鷹(海東靑)(17191208 御獻上), ⑪鷹(海東靑/鶯)(17210730 公義), ⑫白松鶯(17250519, 17251005 불명), ⑬蝟鼠牝牡/海東靑/黃芩(17230717 公義), ⑭虎頭骨/半弓/握皮(17260313 公義), ⑮赤龍牛/牛毛(17260410 公義), ⑯鴛鴦/蝟鼠/黃柏(1727(월일 불명), 17270308, 17270603, 17270606 公義), ⑰鶯之羽(17301117 御軍用), ⑱海狗(17310918 公義), ⑲溫■■/海狗腎(17311206, 17311220 公義) |
| 3  | 일본 | 1751~1800 | 동물        | 95        | ①黃鳥(1751(월일 불명) 有馬中務大輔; 17580620 御隱居樣; 17630627 御前御用; 17661004 小笠原左京太夫), ②活鯉(17511029 御前御用), ③鶴(17511203, 17520114, 17610214, 17800207 御獻上), ④鷹(17520402, 17520905, 17521202 細川越中守; 1754(월일 불명), 17560303, 17561203 松平筑前守; 1756(월일 불명) 御, 17561203, 17561206 御用; 17570126 御; 17570122, 17570126 御所望; 17640722 御大名方; 17641203 御註文; 17641218 御; 17650113, 17650117 松平陸奥守, 伊達遠江守; 17661113,                                                                                                                                                                                                                                                                                                   |

|   |    |           |    |    |                                                                                                                                                                                                                                                                                                                                                                                                                                                                                                                                                                                                                                                                                                                                                                                                                                                                                                           |
|---|----|-----------|----|----|-----------------------------------------------------------------------------------------------------------------------------------------------------------------------------------------------------------------------------------------------------------------------------------------------------------------------------------------------------------------------------------------------------------------------------------------------------------------------------------------------------------------------------------------------------------------------------------------------------------------------------------------------------------------------------------------------------------------------------------------------------------------------------------------------------------------------------------------------------------------------------------------------------------|
|   |    |           |    |    | <p>17661203 御註文; 17820612 有馬中務大輔; 17820913, 17821107 御注文; 17821108, 17821119 倉掛安右衛門; 17850329, 17850408 불명; 17851103, 17851110 御注文; 17921126, 17921128 公義; 17921129, 17921202, 17930128 御獻上; 17930329 辰右衛門; 17930129, 17930206, 17930223, 17930305, 17930306, 17930307, 17930309 獻上御用; 17930611, 17930810, 17930908, 17931003, 17931011 御注文; 17931107 불명; 17930802, 17930923, 17931022, 17931023, 17931024, 17931104, 17931106, 17931117 御; 17950805 松平阿波守; 17950908, 17950927, 17951005, 17951014 御註文; 17951029 御), ⑤黃鷹(17941103, 17941118 松平阿波守), ⑥鷹/餌鳥(17521206 御), ⑦鶴鵲(17610215 御獻上), ⑧鷹/筆(17660401 御用), ⑨鶉(17690924 石谷備後守), ⑩馬/杖(17730726 御用), ⑪鶉(17740324 御前御用), ⑫鷹(鷹師)(17820910, 17820914, 17821018, 17821023, 17821108, 17821110 倉掛安右衛門; 17850807(동일 기록 2건), 17851118, 17851119, 17851122 石田甚五兵衛; 17921127 公義, 17930111 御獻上), ⑬鷹(餌打方)(17931025 御), ⑭鷹(餌鳥, 漕船)(17931027 御), ⑮鷹(漕船)(17931028 御)</p> |
| 4 | 일본 | 1801~1836 | 동물 | 17 | <p>①青羊肝(18020525 御註文; 18030207 以酤庵), ②鷹(18060116, 18061016, 18071104, 18080125, 18080126, 18080128, 18080201, 18170120, 18170221, 18170329 御註文; 18340601 筑前樣), ③黃鷹(18170326 御註文), ④虎皮, 豹皮(18360802 公義), ⑤黃鳥(18190517 불명; 18310623 松平周防守)</p>                                                                                                                                                                                                                                                                                                                                                                                                                                                                                                                                                                                                                                                              |
| 5 | 일본 | 1686~1700 | 식물 | 3  | <p>①藥種(阿仙藥)(1691(월일 불명) 불명), ②藥種(三奈)(1691(월일 불명) 불명), ③木香(1691(월일 불명) 불명)</p>                                                                                                                                                                                                                                                                                                                                                                                                                                                                                                                                                                                                                                                                                                                                                                                                                             |
| 6 | 일본 | 1701~1750 | 식물 | 18 | <p>①人蔘(17150924 公義), ②棟參(17190627, 17190717 御所望), ③藥材(17230802, 17250108 公義; 17330417, 17330603 御用; 17501014 불명; 17501221 阿比留太郎八), ④藥材(酸棗仁)(17240116 公義), ⑤樺木皮(弓握</p>                                                                                                                                                                                                                                                                                                                                                                                                                                                                                                                                                                                                                                                                                                                                     |

|    |    |           |       |    |                                                                                                                                                                                                                                                         |
|----|----|-----------|-------|----|---------------------------------------------------------------------------------------------------------------------------------------------------------------------------------------------------------------------------------------------------------|
|    |    |           |       |    | 卷)(17250806, 17250828 불명), ⑥麻黃葦耳草(17270212, 17270721 公義), ⑦藥材(玄胡索實狼毒)(17271104, 17280202 불명), ⑧▲▲木(17280926 御用), ⑨草花(17300914 御用)                                                                                                                       |
| 7  | 일본 | 1751~1800 | 식물    | 4  | ①藥材(17510123 불명; 17510610 御用), ②生活人參(17650211 御隱居様; 17650316 불명)                                                                                                                                                                                        |
| 8  | 일본 | 1801~1836 | 식물    | 1  | 人參(18170417 御獻上)                                                                                                                                                                                                                                        |
| 9  | 일본 | 1686~1700 | 서적·서화 | 11 | ①書物(16861121, 16870105, 16870122, 16870401 御註文; 16901225, 16910512, 16910514, 1691윤0818 殿様), ②茶臺手本(16961010 公義), ③繪(16980702, 16980711 御詔)                                                                                                              |
| 10 | 일본 | 1701~1750 | 서적·서화 | 13 | ①繪(17230107 御註文), ②手本用 眞文(17240219, 17240617 御註文), ③醫書(牛馬療治)(17251026 公義), ④醫書(醫林撮要)(17270920 불명), ⑤冠服繪圖/鴛鴦(17270815 불명), ⑥書畫(筆跡)(17280627 以酩庵), ⑦書物(17280718 불명; 17280827 公義), ⑧書付(17281013 불명), ⑨書籍(17360423 丹羽正伯), ⑩繪字(17501009, 17501201 京都 外山左兵衛様) |
| 11 | 일본 | 1751~1800 | 서적·서화 | 12 | ①繪(17650120 御用), ②書畫(17660219 御用; 17661203 御國; 17980418, 17981108 以酩庵), ③書物(17680602 松田李庵老; 17851002 石田甚五兵衛; 17960219 御注文), ④地理之書(17960626 御注文), ⑤詩作書物(朴德源)(17961107 以酩庵), ⑥墨跡(17970218 戶田采女), ⑦朝鮮板 前漢書(18000908 御注文)                                   |
| 12 | 일본 | 1801~1836 | 서적·서화 | 7  | ①紙(扇地紙)/朝鮮人書認(18030212 以酩庵), ②朝鮮板 前漢書(18061016 御註文), ③退溪文集(18310621, 18310906 九條様), ④名筆之書(18330826, 18331212 御奥), ⑤鷹(18340504 筑前様)                                                                                                                      |
| 13 | 일본 | 1686~1700 | 기타    | 3  | ①佩玉(16910811 御用), ②白슬(목??)(1691년 (월일 불명) 불명), ③水晶玉(16940620 公義)                                                                                                                                                                                         |
| 14 | 일본 | 1701~1750 | 기타    | 0  |                                                                                                                                                                                                                                                         |

|    |    |           |    |     |                                                                                                                                                                           |
|----|----|-----------|----|-----|---------------------------------------------------------------------------------------------------------------------------------------------------------------------------|
| 15 | 일본 | 1751~1800 | 기타 | 8   | ①筆(17650509 御用; 17661216 松平右京太夫; 17670611 松平周防), ②鞍(17770307 御用), ③品品(???) (17770707 細川越中守), ④願之品(???) (17821110 倉掛安右衛門), ⑤受取物(???) (17821116 倉掛安右衛門), ⑥色紙(17970502 戸田采女) |
| 16 | 일본 | 1801~1836 | 기타 | 2   | ①色石(18170713 御註文), ②赤土(18251022 御國)                                                                                                                                       |
| 계  |    |           |    | 295 |                                                                                                                                                                           |

자료: 『御註文物之事 外向共』, 『分類事考 10(일본 國立國會圖書館 소장)

주 1: 公義는 幕府(주로 將軍)가 요청한 것을 의미함. 단 朝鮮公義는 朝鮮國王을 의미함.

2: 御注文과 御註文이 혼용되고 있는데, 원문에 기재된 대로 표기함.

3: 御詔와 御調가 혼용되고 있는데, 원문에 기재된 대로 표기함.

4: 御는 御鷹 또는 御馬 등과 같이 물품 앞에 붙어 있는 경우임.

5: 御獻上 또는 御用 등은 원문에 기재된 대로 표기함.

| Abstract |

The Exchange of ordered goods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rough the Documents produced by  
*Tsushima* domain

Chung, Sung-II

This article examines the exchange of ordered goods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late Joseon Dynasty in terms of the movement of goods by the two nations, using the documents written by *Tsushima* domain. The movement of goods between the two countries can be divided into economic exchanges by trading merchants and diplomatic exchanges by diplomatic envoys. However, if one more is added to this, it will be an exchange through an order to the other country.

The documents of *Tsushima* domain which were mainly introduced in this article, are composed of the data on the lists of affairs (*J. Bunrui Jiko*) that records the order details of Korea and Japan. This data allows you to grasp the order details of both countries for 151 years from 1686 to 1836. Through this article, it was newly revealed that Joseon ordered fruits such as tangerine (*J. Kunenbo*), euphoria longana, and mandarin oranges from Japan for the ancestral rites of Korean palace. In addition, it was repeatedly confirmed that Japan also ordered peregrines from Korea.

The documents of *Tsushima* domain have an advantage in that it can supplement the records made by Korea. It is expected that the dynamics and diversity of Korea-Japan relations during the Joseon Dynasty will become clearer if it is comprehensively analyzed with Korean records, for example the Records of Japanese Requests to Korea (*K. Waein Kuchong Deungrok*),

the Case Books of Korea's diplomacy to Japan(K. *Byeonrye Jipyo*), and the Diary of Korea's diplomacy authorities (K. *Jeongaeksa*).

**Key Words:** Joseon Korea, Japan, *Tsushima* island, *Tsushima* domain, Documents of *Souke*, *Waegwan* (Japan House)